



Landscape Review

Vol.19 조경정보

Contents

도시공원과 시민참여

- 02 _ 도시공원과 시민참여 김인호
- 03 _ 뉴욕의 도시공원재단 조경진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 조경진
- 04 _ 학교가 공원이 되다 이형숙
시민참여와 설계가의 새로운 역할 김영민
- 05 _ 지역주민, 기업, 방문자가 만들어가는 예술과 문화의 장 윤상준
지정관리자제도를 활용한 공원경영실천 손용훈
- 06 _ 시민이 가꾸는 치유의 과거 손용훈
한 그루의 나무는 내일을 살 힘을 준다 김영민

도시공원과 시민참여

도시공원은 시민참여를 통해 완성된다 글 · 사진 김인호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kimih@shingu.ac.kr

최근 서울시와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녹지정책의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2013년 4월 1일 서울시는 “서울이 공원이며, 시민이 공원 주인이다”라는 푸른도시 선언을 통해 서울이 공원이라고 천명하였다. 선언문에 담긴 9개 항목들도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들이어서 그 의미가 새롭다. 특히 공간을 대상으로 하던 관점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은 시대정신을 적극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말에 공공조경가그룹과 함께 공원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원녹지 분야의 시민참여에 지평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는 서울시보다 며칠 앞선 2013년 3월 26일 “시민이 녹색도시의 주인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수원그린포럼 2013’에서 수원시 공원녹지에 관한 비전을 발표하였다. 수원시 그린비전 선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녹색도시 조성, 시민과 함께 만드는 녹지공간 확충, 오갯 만족 자연치유의 3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시민참여가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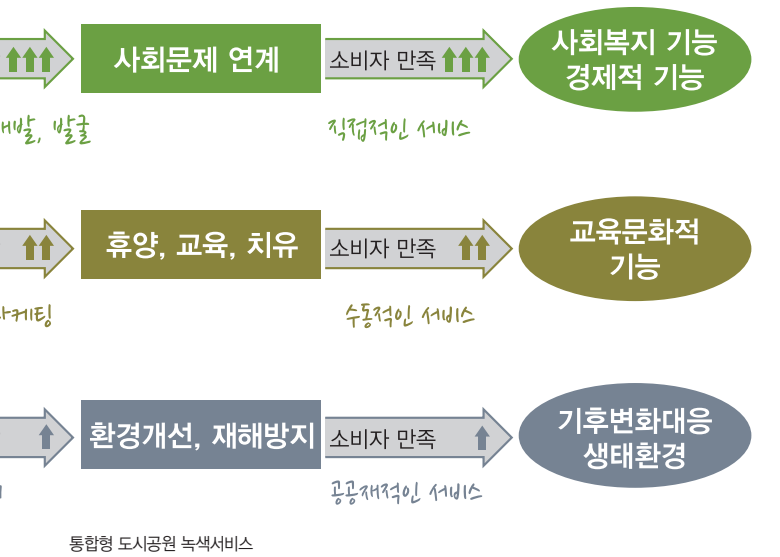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와, 푸른길공원의 관리운영을 시민 참여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 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운영 조례안’이 2012년에 통과하여 푸른길공원의 관리운영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된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흥시는 군자배곧신도시공원녹지 등 녹색공간 계획에 시민참여형 공원을 만들기 위해 조정설계방향도 생명이 호흡하는 건강한 ‘치유공원’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시민참여 공원’ 사람과 자연, 도시의 삶을 담은 ‘문화공원’으로 하고 있다. 도시의 공원녹지 정책과 관련한 최근의 변화를 통해 시민참여가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왜 도시공원이 시민참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도시공원은 녹색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여기서 시민은 도시공원의 가치생산자이면서 가치소비자이다. 그러므로 도시공원의 생태적,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참여는 필수조건이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삶과 상호작용하는 도시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자연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환경의 문화적 가치를 확대·재생산하는 문화발전소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정은 편익적인 기능만을 강조하여 행정 중심으로 도시공원의 시설 유지관리에만 집중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녹색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질 높은 운영·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도시공원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서비스는 환경적, 재해방재적 측면의 공공재적 서비스다. 2차 서비스는 공급자의 노력으로 교육적, 휴양적, 치유적, 건강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다. 1, 2차 서비스가 공급자적 서비스였다면, 3차 서비스는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실업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1, 2, 3차 서비스는 수준과 내용의 차이가 있을 뿐 통합적으로 모색되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비스개발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과 고민이 필요하다.

도시공원이 어떤 내용과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누가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두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공급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문제이다. 그래야 우리의 역할과 몫이 분명해진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민감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면 좋은데, 쉽지 않다. 하지만 서비스가 사회문제해결에 초점을 가질 때 공원녹지분야의 사회적 가치와 몫은 훨씬 많아지고 풍부해질 수 있다. 어렵지만 도전해야 한다. 우리가 사회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회문제해결을 지향한다는 태도와 자세는



필요하다. 둘째는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다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경쟁체계를 유지하며 공급주체가 다양해야 한다. 도시공원의 예를 보면 서비스의 공급자는 현재까지는 행정중심이다. 시민이 직접 서비스의 공급자로 변신해야 할 시점이다.

도시공원의 시민참여와 파트너십 활성화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압박 및 운영 효율화, 질 높은 서비스제공과 연계되어 있다. 북미에서는 컨서번시 또는 프렌드십과 같은 민간의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활동과 지정관리자제도와 같은 민간위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도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세계금융위기로 말미암은 성장의 한계, 지자체의 모라토리엄 선언, 지자체 공원녹지예산의 축소 등 재정압박 문제가 크게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원을 포함한 공공시설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시민참여는 도시공원의 녹색 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위한 기반이다. 도시공원의 질 높은 유지관리, 도시공원의 잠재된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는 운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된다. 생활권에 인접한 도시공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 어르신, 은퇴자들에게 자아실현,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시공원에서 10대와 60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대안¹을 찾을 수도 있다. 노인문제, 고용문제, 청소년문제 등 사회문제를 도시공원에서 완결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시민참여를 통한 운영관리는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도시공원의 주요 주체가 공간디자인 측면에서 사회디자인 측면으로 전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과 차원이 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진화를 위해 민·관 파트너십 운영과 같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화는 무엇보다도 필수불가결한 요건이 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공원 서비스의 공급자가 필요하다. 행정중심의 단일형 서비스 공급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서비스 공급자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도시공원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운영·관리에 참여하고 관여하게 된다면, 지역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나가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제는 만들어 주는 도시공원을 시민이 이용만 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계획 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이제 시민참여를 통한 관리에서 경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 청소년문제는 30~40대 청년들보다 60대 시니어그룹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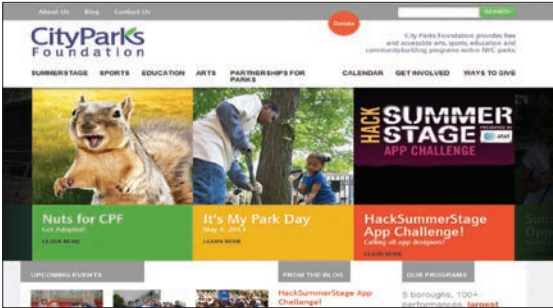
뉴욕의 도시공원재단

City Park Foundation 글 · 사진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kjzoh@snu.ac.kr

도시공원재단은 뉴욕시 750여 개 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다. 1989년 시작된 재단의 설립목적은 뉴욕시민들이 공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등의 경험을 확대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공동체를 강화함에 있다. 이 재단의 주요한 후원그룹으로는 at&t, disney, TimeWarner, Chase 등의 민간 기업과 여러 공익재단과 시민들이다. 일반 시민들은 25달러부터 기부할 수 있는데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를 지정하여 선택 기부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Summer Stage로, 뉴욕시의 여러 공원에서 여름에 음악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든 시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을 감상하게 하는 것이다. 예술프로그램은 주로 3세에서 12세를 대상으로 댄스, 스토리텔링, 음악공연 등 아이들을 위한 축제가 제공된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 유아 및 노년을 위한 피트니스 등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여러 공원에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연학습 및 정원 가꾸기 등의 야외현장학습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1995년부터는 도시공원재단과 뉴욕시 공원휴양청New York City Department of Parks and Recreation이 협력하여 Partnerships for Parks라는 협력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커뮤니티 리더들과 시민들이 공원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와 관련된 Partnership Academy라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뉴욕시 공원 중 의미 있는 3~4개 공원을 선정하여



City Parks Foundation의 다양한 활동 (출처: City Parks Foundation 홈페이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지정하여 선택 기부할 수 있다.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

Brooklyn Bridge Park 글 · 사진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kjzoh@snu.ac.kr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은 뉴욕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에 방치된 항구를 공원화 한 곳이다. 85에이커 면적수공간·항구 포함 시 8000에이커 이상으로 2007년에 착공하였다. 공원이 조성되기까지 지역사회 리더 및 전문가들과 60여 개의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가 참여한 비영리단체인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 컨서번시Brooklyn Bridge Park Conservancy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단순히 공원 조성만을 위한 목적을 넘어 공원을 세계적인 워터프론트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 공원의 시민참여와 시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은 재정자립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 공원 운영관리 예산 대부분은 공원 일대 부동산 개발의 수익과 개발 수수료에서 충당하고 있다. 개발 프로그램은 잠재적인 개발 유형과 장소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의해 선정하여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발 용도는 공원운영관리를 위한 충분한 재원 창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면적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낸 뒤, 주변의 공원과 지역주민의 이용에 부합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의 전경 ©조경진

할지를 살펴 결정된다. 개발을 위한 대상지 역시 몇 가지 선정 기준에 의해 정해졌다. 현재까지 선정 기준에 맞추어 결정된 개발대상지는 One Brooklyn Bridge Park0BBP: 약 9.3ha의 창고건물을 400가구가 거주하는 콘도미니엄으로 준공, Pier6주상복합 콘도, 상업시설과 주차장, Pier1호텔과 주상복합 콘도 개발예정, Empire Stores19세기 커피 창고를 개조하여 상업시설과 주거 지역으로 개발, John Street주상복합 예정 등 5개 사이트이다. 총 개발면적은 8에이커로 이는 전체 프로젝트 면적의 10% 미만에 해당한다. 남은 개발대상지는 공원 개발과 페이스를 맞추어 공원운영기금의 수요 수준에 맞추어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은 공원 개발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개발 전에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협약을 통해 ‘공원관리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책임’임을 명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 컨서버시는 주민들의 공원 이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공원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Michael Van Valkenburgh의 공원디자인도 몇 가지 혁신적인 측면이 있다. 공원에 면한 고속도로의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마운딩을 활용하였고, 브리지를 통하여 인근 주택가에서의 접근을 수월하게 하였다. 또한 공원디테일에 우수활용 등의 생태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도스라이프 스타일과 여가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간이 구축되어 있다. 맨해튼의 풍경을 바라보는 플랫폼, 넓은 잔디밭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다목적 공간, 모험놀이터, 농구 등 운동 공간, 카약을 할 수 있는 레프츠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발적으로 공원을 활성화하는 계획과 실행을 하는 Catalyst Program도 함께 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 계획의 주체가 되어 이 일을 주도하게 된다. People Make Parks는 지역 주민들이 공원조성과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원체제이다. 주민들이 계획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하고 단계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여 주는 일을 돕는다. 또한 매년 5월 하루를 It's My Park Day로 정해 이날은 청소나 벤치의 페인트칠, 수목관리 등 다양한 일을 통하여 시민들이 공원을 가꾸는 일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 동네 공원이 지역주민의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도시공원재단은 공원에서 보다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fundraising event를 개최한다. 재단은 지난 23년 동안 시민들이 공원과 친숙하게 하였고 도시공원의 가치를 증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도시공원재단은 뉴욕시 750여 개 공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다. 1989년 시작된 재단의 설립목적은 뉴욕시민들이 공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등의 경험을 확대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공동체를 강화함에 있다. 이 재단의 주요한 후원그룹으로는 at&t, disney, TimeWarner, Chase 등의 민간 기업과 여러 공익재단과 시민들이다. 일반 시민들은 25달러부터 기부할 수 있는데 여러



브루클린 브리지 공원의 다양한 공간들 ©조경진

학교가 공원이 되다

미국 텍사스 스파크 프로젝트SPARK: School Park 글 · 사진 **이형숙** 가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soolee@gachon.ac.kr

스 파크SPARK: School Park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시의 학교 공원화 사업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공공시설이 부족한 저소득 지역에 있는 공립 학교 캠퍼스를 개발하여 커뮤니티 주민들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1983년 당시 시의원이던 엘리노어 틴슬리가 제안한 스파크는 지방정부의 빠른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저소득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공원을, 학생들에게는 생태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프로그램은 휴스턴 시의 녹지부족문제 해소와 소외된 저소득층 지역의 균등한 녹지 확보뿐 아니라 빈곤층 대상사업으로서 연방정부의 지역사회개발 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커뮤니티 주민들이 개발 초기에서부터 완공 후 관리까지의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1996년부터는 휴스턴 시장의 지속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200여 개가 넘는 공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다른 환경운동 사업과도 연계되어 휴스턴 외부 지역까지 스파크 공원들이 전파되고 있다.

해당지역의 가구소득이나 대상지 주변의 자녀구성원 분포 등의 기준과 더불어, 접근성, 보행 안전성 등 여러 물리적, 사회적인 환경조건이 고려된 엄격한 대상지 선정 작업을 통해 연방정부의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지의 선정에 주민들의 합의와 참여의지, 학교, 시민단체, 참여기업 등 지역사회 단체들 간의 협력체제 등이 선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연방정부 지원금 외의 개발비용을 선정된 학교와 지역에서 자체



틴슬리 SPARK 공원 모습 ©이형숙



좌,틴슬리 SPARK 공원 Dedication Ceremony ©이형숙
우,아이들이 공원 연못에 거북이를 봉사하는 모습 ©이형숙

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서, 공사비용 마련을 위한 재정모금활동과 디자인 과정에 지역사회의 협력과 주민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휴스턴 남서부 저소득층 지역의 틴슬리 초등학교 자연학습장은 이러한 주민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스파크 공원이다. 우기 때마다 물에 잠기고 잡초와 모기, 해충들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까지 우려되던 학교 공간은, 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교직원과 주민들에게는 휴식과 여유를 위한 근린공원으로 변모하였다. 조경가는 프로보노**재능기부** 활동으로 배수문제 해결자문과 함께 교사, 학부모, 학생, 주민들의 요구와 협의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완성하였고, 이후 입찰과정, 공사감독 등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휴스턴의 수목단체와 주민들은 나무나 벤치를 기부하고, 보이 스카우트 단원들은 직접 목고 건설과 정원공사를 담당하고, 주변 대형마트 등의 기업에서는 기부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지원하였다.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중고품판매, 음료수판매, 동전 모으기, 티셔츠와 캔디 판매 등 다양한 모금활동을 벌였다. 2003년 완공된 틴슬리 공원은 휴스턴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수상하였다.

저소득층의 녹지 확보와 도시의 이미지 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SPARK사업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꾸어

낸 공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 수 있었다.

시민참여와 설계가의 새로운 역할

Los Angeles State Historic Park 글 · 사진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bresit@gmail.com



하그리브스 어소시에이츠의 계획안
(출처: Hargreaves Associates)

시켰던 조엘 스타펠드Joel Sternfeld의 사진전 “Walking the High Line”처럼 2005년 로우렌 본Lauren Bon이 콘필드를 대상으로 옥수수를 이용한 설치미술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2006년 공원국은 시민단체인 캘리포니아 주립 공원 협회California State Parks Foundation와 함께 현상 공모전을 실시하여 하그리브스 어소시에이션Hargreaves Association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공모전과는 다르게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들은 건축, 조경 관련 전문가들이 아닌 콘필드와 관련된 중요 지역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하그리브스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의 전략은 대상지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근 주민들이 지닌 기억과 경험을 공간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시민참여 설계를 보면 주민들이 모자이크 타일, 벽화 등의 부분적인 작업에 직접 참여를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설계자가 해석한 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설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강조하더라도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때문에 실질적인 참여는 제

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민 참여 설계에서 설계가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설계에 참여하면서도 설계가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하그리브스 어소시에이츠는 카드놀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보다 주민들이 설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을 제안한다.

하그리브스 어소시에이츠가 제안한 시민 참여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카드놀이에서 주민들은 두 장의 카드가 들어가는 프레임을 갖게 된다. 프레임의 두 칸 중 하나에만 카드가 삽입되어 있으며, 이 카드의 이미지에 따라 프레임에는 주제가 부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주제의 프레임에는 차이나타운 정문의 이미지가 있고 카드 뒷면에는 왜 이 이미지가 ‘집’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제 주민들은 프레임의 비어 있는 칸에 자기가 생각하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이미지와 또 다른 이미지가 만날 때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한 예로, 철거된 마을의 이미지에 ‘퇴거’라는 주제가 부여되어 있고 홍수가 난 마을의 오래된 사진에는 ‘통제’라는 주제가 주어져 있다. 이 주제가 한 프레임에서 만났을 때 이는 차베스 라빈이라는 히스패닉 공동체의 강제 이전과 로스앤젤레스 강의 범람이 서로 연관되면서 지역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민들이 조합한 이야기는 타임라인의 동선과 교차점에 물리적으로 각인된다. 하그리브스 어소시에츠가 개발한 이 같은 주민참여의 도구와 방법은 설계가의 역할이 단순히 의견 청취와 반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보여준다.



하그리브스 어소시에이츠가 제안한 카드놀이
(출처: Hargreaves Associates)

지역주민, 기업, 방문자가 만들어가는 예술과 문화의 장

영국 요크셔 조각 공원Yorkshire Sculpture Park 글 · 사진 **윤상준** (재)아름지기 연구위원 alpinet0504@hotmail.com

공원에 있어 시민의 참여는 공원의 조성 이 결정되는 것부터 설계, 조성과정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공원의 지속적인 운영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운영에는 지역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공원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참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영국 요크셔 조각 공원은 조각이라는 특화된 주제를 통하여 다양한 시민 참여의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리즈Leeds시 남쪽에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요크셔 조각 공원은 영국 현대조각의 개척자인 헨리 무어Henry Moore: 1898~1986, 추상 조각의 대표자인 바바라 헵워스Barbara Hepworth: 1903~1975, 앤젤 오브 더 노스Angel of the North의 작가 안토니 고티Antony Gormly: b. 1950, 안소니 카로Anthony Caro: b. 1924 등의 작품이 정원 및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실내의 폐쇄된 공간이나 일률적인 배경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곳이다. 특히 18세기에 조성된 풍경식 정원은 조각 작품들이 완전히 정원 속에 녹아 들어가 관람자에게 이상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원래 브레튼Bretton 저택과 큰 호수가 있는 풍경식 정원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1940년대에 들어서 정원과 저택은 분할되어 팔렸다. 하지만 1977년 이곳에 요크셔 조각 공원YSP이 조성되면서 부분적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하였고, 이후 약 260억 원의 복원 비용이 투입되어 현재 200만㎡ 넓이의 조각 공원이 되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술협회나 영국 지방정부에 의해서 런던에 있는 공원에서 조각 전시회가 개최되기는 하였지만, 조각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조각품이 영구적으로 전시되기 시작한 것은 이곳이 첫 사례이다. 2002년에 새롭게 방문센터가 문을 열어 한층 발전된 복합적 조각 공원으로 재탄생하였다. 적어도 40여 개가 넘는 조각이 항상 전시되고 있으며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방문센터 ©윤상준

이곳의 특징은 단연 그 운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8년 자선단체로**등록번호**는 1067908을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원은 무료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참여가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예술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의 운영, 200만㎡의 부지 관리를 위해서는 기금확보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금, 다양한 재단으로부터의 자선 지원금, 연간 45,000명의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공원 내 식당, 가게 그리고 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과 방문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재정 후원은 아니지만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로이드 은행Lloyds Bank과 카드결제회사 스트림라인Streamline 등의 기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993년부터 자신의 목적으로 결성된 후원회 Friends of Yorkshire Sculpture Park에서는 공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원봉사, 기금모금 운동, 재정적 후원, 피드백, 행사 조직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형태의 후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로 본인의 관심에 따라 미술 및 조각 작품 해설,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실내 전시관 감독 그리고 공원 유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돈 1,000파운드의 기금으로 시작된 조각 공원은 현재 다양한 재단, 기업, 지역주민 그리고 방문자에 의해서 250억 원의 기금 운용과 지역 내에 연간 100여 명의 고용창출 및 1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요크셔 조각정원을 위해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천공되어 있는 비석 철판
©윤상준



헨리 무어의 ‘우아하게 앉아 있는 여인 Draped Seated Woman’: 1957~’58’
©윤상준

지정관리자제도를 활용한 공원경영실천

일본 사야마구릉도립공원狭山丘陵都立公園 글 · 사진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sonyh@snu.ac.kr

일본 도쿄 외곽 무사시노 대지에 있는 사야마구릉도립공원은 도쿄의 수원지인 다마코와 사야마코 호수의 수원 보호림을 중심으로 도쿄도가 조성·관리하는 도쿄 도립의 도시공원이다. 사야마구릉도립공원은 4개의 공원노야마키타로쿠도야마공원178.3ha, 사야마공원23.3ha, 하치코구야마녹지36.5ha, 히가시야마공원18.4ha으로 구성된다.

넓은 면적과 수원지에 인접하여 개발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사야마구릉도립공원은 관리 측면에서 일반 도시공원과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이 공원은 확립적 공원 조성방법이 아닌 시민과 협동하여 공원을 만들어가며, 함께 공원을 운영하고, 함께 공원의 미래상을 구상하는 관민협동에 의한 공원경영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흔하였지만, 현재는 보기 드문 마을 뒷산과 같은 자연을 시민들과 함께 가꾸어 후세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주민에 의한 숲 관리, 논밭 경작 등 공원 내에서 적극적인 자연체험공간을 제공하며 환경을 적절히 보전·활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자연과 지역을 연결하는 공원조성’이 본 공원운영의 목표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야마구릉도립공원은 지자체가 직영하는 관리형태가 아닌 민간의 힘을 활용한 공원관리방법인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정관리자제도는 지방공공서비스의 관리운영에 민간 기술, 자본 혹은 시민단체에 법적 위임을 가능하게 한 제도로 2003년 일본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다. 도시공원에 관해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공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야마구릉도립공원의 지정



자원봉사자들이 생각한 노야마로쿠도야마공원의 미래 이미지
(출처: NPO Birth)

관리자인 세이브 사야마구릉 파트너스Seibu Sayama Hills Partners는 공원 관리에 필요한 5개 전문단체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SSHP는 조경회사, NPO단체, 연구기관이 각각 상호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원의 운영관리를 한다. 세이브 조경이 전체총괄 주체이며, 숲 관리·시설물관리·GIS를 활용한 식생 보전관리 등 유지관리는 세이브 녹화관리주식회사와 NPO GCN이 맡고, 지역연대·시민참여·공원프로그램 개발 등의 운영관리는 뎀 지역환경연구소와 NPO Birth가 담당한다.

노야마키타로쿠도야마공원의 운영관리는 NPO Birth가 맡고 있다. 숲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본 공원에는 2010년 기준으로 유료등록 자원봉사자 수 3,872명이 가입되어 참여활동이 활발하다. 유료등록 자원봉사자란 연회비를 내고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시민 참가자를 말한다. 근린 자연환경을 테마로 한 조사연구, 자연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현장에 기반을 둔 실천적 활동을 하는 NPO Birth가 축적된 노하우로 흥미로운 운영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노야마키타로쿠도야마공원이 조성된 부지는 이전에는 주민들이 각처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던 장소였다. 사야마구릉도립공원은 특별한 공원시설은 없지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자연과 지역을 연결하는 공원조성’이라는 목표와 이를 실천하는 전문성 있는 지정관리자의 활약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공원으로 탄생한 좋은 사례다.



NPO Birth가 진행하는 공원해설 프로그램 ©손용훈

시민이 가꾸는 치유의 과정

노을공원 시민모임 글 · 사진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sonyh@snu.ac.kr

과거에 한강 둔치의 아름다운 섬이었던 난지도는 1978년부터 15년간 서울시민의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며 쓰레기 산으로 변하였고,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난지도는 쓰레기, 악취, 환경오염 등의 나쁜 이미지를 떠올리는 공간이었다. 이런 난지도가 1993년 수용 한계에 이르러 폐쇄되고 이후 복원화 사업을 통하여 공원으로 바뀌었다. 2002년 조성된 월드컵공원의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부지가 바로 과거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이다.

하늘공원은 공원화 계획을 통해 별다른 문제 없이 공원조성이 이루어졌지만 노을공원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노을공원 부지는 서울시가 애초 골프장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9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조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환경단체가 반대하여 결국 2008년 가족공원으로 새롭게 개장하게 되었다. 현재 월드컵공원은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관리하고 있고, 노을공원 운영관리는 노을공원 시민모임과 업무협약을 맺어 시민참여를 통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노을공원 시민모임의 주된 활동은 나무심기, 생태탐사, 공원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시민참여의 실현이며 사무국 활동가 두 명과 활동을 돕는 시민 자원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자원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은 주목할만하다.환경이나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10일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자원 활동가들은 인터미 카페 등을 통하여 소식지인 노고시모nogosimo를 발간하고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난지도



상. 노을공원 100개 숲 만들기 활동사진(출처: 노을공원 시민모임)
하. 노을공원 100개 숲 만들기 활동사진(출처: 노을공원 시민모임)
우. 노을공원 전경 ©손용훈

라는 지역성을 고려하여 구상한 ‘평화의 씨앗 프로젝트’는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하여 언어, 생태환경, 사람을 주제로 한 환경 프로젝트이다. 2013년 진행 중인 대표적인 활동은 ‘노을공원 사면 100개의 숲 만들기약창: 노을 백 개의 숲’이다. 노을 백 개의 숲 사업은 기업, 단체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자신이 직접 정한 장소에 정기적으로 나무를 심고 자신의 손으로 숲을 가꾸어가는 시민 참여형 숲 만들기 사업이다. 현재까지 10개의 숲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100개의 숲 지킴이 교육’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 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변함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 2013년 포트코리아 환경 프로그램 지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노을공원 풀꽃길에서 평화를 걷다약창: 풀꽃평화길’ 사업도 시작하였다. 풀꽃평

화길은 노을공원에 사는 잡초풀꽃을 조사하고 각각의 이름과 쓰임새를 알리면서 생명존중에 대해 생각하고, 특히 왕파, 부적응, 소외 등으로 마음에 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풀꽃을 가꾸고 알려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처를 투영시켜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활동이다.

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힘들게 얻어진 노을공원은 전문가, 사업가, 활동가들의 관심과 협조체제 아래 사무국과 자원 활동가의 헌신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참여 활동에서 조금씩 그 성과를 내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지만 시민 자원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자원 활동가 인재를 개발하고, 이들이 활동하는 장으로서 노을공원이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창의적 공원문화 양성과 시민들의 건강한 커뮤니티 장소로서 노을공원의 미래상은 밝다고 믿는다.

한 그루의 나무는 내일을 살 힘을 준다

우리 동네 숲: 청량리 밥퍼 프로젝트 글 · 사진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bresit@gmail.com

지난 2012년 서울시는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함께 동대문구 청량리의 무료 급식소 밥퍼 부지에 우리 동네 숲을 조성하였다. 우리 동네 숲 조성은 서울시와 기업이 함께 기금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함께 도심의 숲을 가꾸는 그린트러스트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씨티은행, 메리츠 화재, 유한킴벌리와 같은 기업들의 후원을 받은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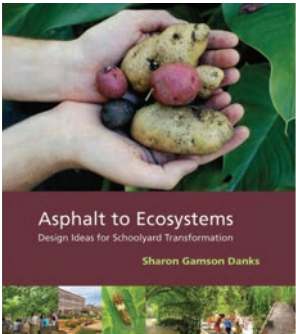
청량리 밥퍼 프로젝트는 스물세 번째 우리 동네 숲으로, 남겨진 공유지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소외계층과 지역주민을 위한 쉼터이다. 대상지는 청량리역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900평가량의 공지이다. 이곳은 2009년까지 철도, 제방 용지로 사용되었으며 하수암거 이설공사가 완료된 후 빈 땅으로 남아있었는데, 이후 최일도 목사가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고 이를 위해 쌀을 마련하는 모금 운동을 전개하면서 무료급식소 밥퍼로서 활용되어왔다. 밥퍼의 주 이용자는 독거노인과 노숙자와 같은 소외 계층으로 매일 천 명가량이 이곳을 이용을 해왔다. 자원봉사자보다 이용자가 많다 보니 식사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1시간가량 되고, 자원봉사자와 기부만으로 운영되는 무료 급식소의 여건상 식사를 받아도 마땅히 식사할 만한 장소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반영하여 밥퍼의 이용자들이 식사를 기다리고 머물 수 있는 더 나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의 김아연 교수가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실시설계는 푸른세상이 맡았다. 밥퍼의 우리 동네 숲은 “한 그릇의 밥은 오늘을 살 힘을, 한 그루의 나무는 내일을 살 힘을 준다”는 개념으로 “밥숲”으로 계

획되었다. 밥숲을 표현하기 위해 이팝나무를 모티브로 선택하여 아스콘 표면에 나무의 수관을 형상화한 작업이 먼저 진행되었다. 나무 수관 형태의 포장 패턴은 많은 인원을 유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광장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공간의 느낌과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디자인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패턴의 도색 작업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도로변의 공간은 아스콘 포장의 일부를 들어내고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보행 여건도 개선했다. 녹지 조성 과정에는 한국씨티은행 임직원과 다일복지재단, 서울그린트러스의 직원과 가족들 200여 명이 직접 참가하여 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하였다.

일반적인 시민참여는 스스로 시민들이 이용할 공간의 개선이나 창출에 일부 관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밥퍼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과 실제 이용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용자인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의 이용참여를 유도하였으나 이는 예상과는 달리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여는 자원봉사자, 후원기업의 직원과 가족, 그리고 조경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밥퍼 프로젝트의 시민참여는 봉사 혹은 재능 기부의 형태를 지닌다. 시민참여는 이미 낯선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민참여는 시민을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밥퍼 프로젝트는 특정 재능을 지니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획은 조직과 기획력을 지닌 시민단체가 주도하였으며 학생과 교수의 기능 재부가 있었고, 노동력 제공 형태의 자원 봉사자와 후원기업 가족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었다. 그리고 기업 후원이란 형태의 참여도 있었다. 앞으로의 이러한 다양한 재능과 형태의 참여를 고려하는 시민참여의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BOOKS



Asphalt to Ecosystems

: Design Ideas for Schoolyard Transformation (2010) Sharon Gamson Danks, New Village Press

이형숙

Sharon Gamson Danks의 『아스팔트를 에코시스템으로(Asphalt to Ecosystems: Design Ideas for Schoolyard Transformation)』는, 학생 및 부모, 교사, 디자이너,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보다 자주 자연과 접하고 자연 속에서 놀며 학습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설계하고 만들기 위한 지침서이다. 저자는 10여 년에 걸친 연구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현실감 있게 소개하고 있으며, 11개국 150개의 풍부한 사례를 통해 각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인 노력으로 학교공간을 친환경적 공간으로 변모시킨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있다. 채소 텃밭, 야생동물 서식처, 학교운동장 빗물 저류시스템, 재생에너지 시스템 등 학교시설에 응용 가능한 풍부한 사례들과 함께, 실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방안들도 소개한다. ‘Asphalt to Ecosystems’라는 저자의 아이디어는 국제적으로 알려져 201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 교정 회의International school grounds conference’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Sharon Gamson Danks는 환경계획가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Bay Tree Design, inc.의 공동대표이다.

Sustainable Communities

: New Spaces for planning,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2008) Terry Marsden, Emerald Group Publishing

전재현

이 저서는 국제적인 시각에서 더욱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의 개발 방법을 탐구하는 중요한 논쟁들과 실증적인 사례들을 망라하고 있다. 좀 더 효율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은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며,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잠재적인 관계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이 책은 실증적인 사례연구를 논하기 전에,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들에 관한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연구소BRASSResearch centre for Business Relationships, Accountability, Sustainability and Society에 의해 지난 수년간 수행된 연구결과와 논쟁의 종합판이다. 저서는 커뮤니티 참여와 관련된 정책, 실행 및 전략들과 이들이 어떻게 지역의 환경적인 컨텍스트를 구체화하는지를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한다.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

: (2009) Jeffrey Hou, Julie M. Johnson, Laura J. Laws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3) 제프리 호우, 줄리에 존스, 로라 로슨, 이강오 역, 도서출판 조경

전재현

북미대륙 전역에 걸쳐 수 천 개의 커뮤니티 정원들이 있지만, 오직 시애틀과 몇몇 도시들만이 그들의 도시개발계획에 도시농업을 포함하고 있다. 시애틀은 그 조건과 경험이 독특하긴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다른 도시나 커뮤니티에 의미 있는 교훈과 이해를 제공한다. 본 저서가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 및 여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장소로서의 도시 커뮤니티 정원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 및 설계전략

－ 자원자와 커뮤니티의 참여를 활용하고, 지역정신의 창조를 위한 설계과정, 시공, 그리고 스튜어드십에 대한 접근방법

－ 정원을 저소득층, 소수집단 공동체, 이민자, 그리고 노약자들의 사회정의를 위한 자원으로써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는 커뮤니티 정원에 대한 지식과 자원의 네트워크에 앞서 온 시애틀에 있는 6개소의 커뮤니티 정원과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사례 연구들은 식품안전, 건강한 도시 생태계, 지속 가능한 정원의 실증 및 보행 친화적인 환경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커뮤니티 정원의 확장된 역할을 보여준다. 저자는 또한 조경가, 계획가 그리고 관련된 직종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 독특한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창조에 보다 잘 소통할 수 있을지를 검증하고 있다. 이 저서는 “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라는 제목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 이강오 처장이 번역하여 2013년 4월 환경과조경에서 출간되었다.

NEWS

정리 **신현돈** 서안알앤디디자인(주) 소장 shinhyeondon@korea.com

서울시, '공원녹지돌보미'사업 확대 · 시행
서울시는 작년부터 공원녹지돌보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나무 돌보미(Adopt-a-Tree)'사업에 이어 공공시설물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가꾸고 돌볼 수 있도록 이달부터 '공원 돌보미(Adopt-a-Park)'사업까지 확대 ·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공원을 공원관리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해당 지역의 단체나 시민에게 입양해 시민들이 직접 자원봉사로 공원을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공원 돌보미'사업과 '나무 돌보미'사업은 지역 공원녹지 관리와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입양대상 공원과 가로수는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원과 띠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노선이 해당된다. '공원 돌보미'와 '나무 돌보미'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시민은 원하는 공원, 가로수목을 선택해 관할 자치구나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에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공원 돌보미 단체 및 나무 돌보미로 선정된다.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숲' 조성과 시민참여 활성화 위한 '아카데미 개설'

올 연말 완공을 앞둔 부산시민공원에 모든 시민이 "내 나무"를 심어 대규모 "참여의 숲"을 가꾼다. 이를 위해 대대적 시민 나무 기부운동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부산시민공원 "참여의 숲"은 3만 4천 987㎡(약 500평)의 땅에 부산시민과 향토기업, 기관 · 단체, 출향인사 등이 기부한 나무 등 총 5만 8천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만든다. 부산시민공원에 내 나무 심기 **시민헌수운동**은 1만 원 이상의 기부로 참여할 수 있다. 기부자가 나무를 선택하면 이름과 출생 · 결혼 등 각종 기념일, 소망 등을 표찰에 담

아 원하는 장소에 심어 준다. 더불어 부산시민공원은 시민헌수운동을 비롯해, '조성현장 시민 방문의 날', 수목식재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시민공원의 본격적인 시민참여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민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총 3회 교육을 통해 공원개장 전에 90여 명의 시민공원 자원봉사자를 육성하고 개장 후 즉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개설된 시민아카데미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시민공원의 역사에 대해 교육한다. 또 공원의 조성과정과 공원이식물의 이해, 식재수목에 대한 숲 이야기, 숲 놀이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등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전반을 가르친다.

광주시,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 관리 추진

경기도 광주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를 위해 공원 시민 지킴이 13명을 위촉하고 유관 기관 ·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원 시민 지킴이는 공원 내 시설물 모니터링과 공원안내, 공원 해설, 불법사항에 대한 지도 및 통보업무를 담당하며 무보수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된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 · 단체들은 공원 내 협약단체별 테마동산을 조성해 관리하고, 공원시설물감시, 하천정화, 청소년선도, 재해복구 지원 등의 사항을 상호협조하게 된다.

원주시, 공원 녹지 시민참여 관리제 실시

도심의 동네 공원을 우리 집 정원처럼 시민들이 손수 관리하고 가꾸는 공원 녹지 시민참여 관리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원주시는 공원 녹지에 대한 시민참여 관리제에 시민과 각급 사회단체장 등 77명이 참여 신청을 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3월 12일 오후 3시 시

청 다목적실에서 공원 녹지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관리하고 가꾸는 시민참여 관리협약식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도시미관 관리와 지역공동체 사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수원시 '공원 클린 데이' 운영

수원시는 지난 3월 13일 공원 환경을 정비하는 '공원 클린 데이(Clean-day)'를 시행했다. 공원 클린 데이는 분기별로 1회씩 관내 공원 환경을 정비하는 날로 공원별 순회실시를 통해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원 인근 주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공원 환경 관리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날 공무원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들은 만석공원을 찾아 공원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시설물을 점검하며 호수 내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민 · 관 협치 공원 운영 그린트러스트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세미나

(사)부산그린트러스트는 2012년 12월 21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민 · 관 협치 공원 운영 그린트러스트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시민과 관계공무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 1부에서는 조용국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사장의 인사말과 김영환 부산시 환경국장의 축사, 전봉민 부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유직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서울 · 수원그린트러스트와 부산시민센터, 부산시, 하이라이프 등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녹색 지역 재생과 시민 참여 공원 문화



활성화'라는 주제로 "현재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대공원이나 용두산공원 등에서 민간이 주도해 실험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 개장할 부산시민공원이 시민 참여, 민 · 관 협력, 생태와 문화의 조화, 공간 재활용, 스토리텔링 공간화 등의 목표를 이루려면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시와 공동으로 첫 공원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공원 활동가는 시민이 공원 활용의 생산자가 되도록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공원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기획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른 지역의 공원 조성 사례도 소개됐다. 주민 참여를 통한 두꺼비 생태공원 관리(청주), 폐선 부지를 활용한 녹색 길 조성(광주), 서울숲 조성(서울)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이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줬다.

조경정보지 3기 편집위원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편집위원회를 대신하여 학회지 회원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편집위원들은 2차례 회의를 통하여 19호부터의 편집방향에 대해 숙의를 하였습니다. 최근 조경분야 위기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개발중심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오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 도시와 지역은 더 높은 삶의 질을 요구하면서 공공적 조경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다만 사회가 요구하는 바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간극을 존재해 보입니다. 조경계 내부의 진지한 자기 성찰에 근거한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조경정보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편집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사회적 트렌드와 수요에 따른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룬다. 둘째, 시대를 앞서 가는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한다. 셋째, 정보전달 기능에 충실히 한다. 그 첫 번째로 '도시공원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정하였고, 다음 호의 주제는 '녹색복지와 생활조경'으로 정하였습니다. 조경정보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시면 편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정보지 편집위원장 **조경진**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02-565-2055 Fax. 02-565-2056

e-mail. kila96@chol.com

Homepage. www.kila.or.kr

발행 및 편집위원 정보

발행일 | 2013년 4월 25일

발행처 | (사)한국조경학회(김한배 회장, 서울시립대)

편집위원장 | 조경진(서울대)

책임편집위원

김영민(서울시립대)

편집위원

김병채(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손용훈(서울대), 신현돈(서안알앤디조경디자인㈜),

윤상준(재아름지기), 이형숙(가천대),

전재현(삼성에버랜드㈜), 전진형(고려대)

간사

유은자(사)한국조경학회, 임경숙(환경과조경)

후원사



미주강화주식회사

CHUNGWOO

FUNSTATION

